영·호남 "남해안 우주항공벨트 특별법 연내 제정하라"

전남광주·경남·고흥·사천 국회서 결의대회
15만 서명 전달…"발사체·항공산업 연계"



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남도·고흥군·사천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남도가 고흥과 사천을 잇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시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남도, 고흥군,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명수 전남광주시 산업경제부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한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신종철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영·호남 지역 관계자와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 이후 영·호남 지자체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정점식 여야 원내대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영·호남 시·도민 15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고흥의 발사체 산업과 경남 사천·진주의 항공·위성 산업을 연계해 남해안을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특례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산업·연구·교육시설은 물론 주거와 생활 기반까지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기업과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영·호남 산업 연계와 국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수 전남광주시 산업경제부시장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의 양대 축인 전남광주와 경남이 함께 성장하려면 기업과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시급하다"며 "국가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계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천명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연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는 경남도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1면 '기본소득이 살린 시골장터'서 계속

◇소멸 위기 마을에 인구 유입…1년새 1천72명 ↑

기본소득의 효과는 상권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최대 숙원인 '인구 유출 방지'와 '외지인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곡성군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2월 2만7천499명이었던 인구는 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된 3월 2만7천582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4월 2만7천644명, 5월 2만7천643명, 6월 2만7천657명, 7월 2만7천663명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총 164명이 늘었다.

지난해 7월(2만6천591명)과 비교하면 인구 증가 폭은 더욱 가파르다.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1천72명이나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인구 절벽으로 폐교와 마을 소멸을 걱정하던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이 강력한 '인구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

◇"읍내 미용실 한산" 권역 제한…재원 지속성도 과제

그러나 현장의 열기 뒤편에는 행정 지침의 허점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엄연한 과제도 공존한다. 특히 상권 쏠림을 막기 위해 적용된 '권역별 사용 제한'을 둘러싸고 읍내 상인들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곡성군 지침상 10개 면 주민들이 받은 기본소득은 읍내에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필수 업종을 제외한 일반 업종(미용실·식당 등) 결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곡성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노모(57·여)씨는 "예전에는 면 주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 읍내로 나와 머리를 손질하곤 했는데, 지금은 기본소득이 면 단위에서만 쓰이도록 묶이다 보니 읍내 미용실은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며 "지역 경제를 골고루 살리려면 전 군민이 구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보완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곡성군 전체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약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자체로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 없이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힘든 구조다.현재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비율로 분담·운영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비 지원 비율이 5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군의 재정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전체 군민 대비 기본소득 신청률이 92%에 달할 정도로 현장 호응이 뜨거운 만큼, 주민들이 복지 효능감을 지속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과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선정 임박…전남광주 '촉각'

인구감소 52개군 대상…19일 18곳 발표
지역 12곳 신청…市 "결과 이후 세부 논의"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발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광주지역 12개 군의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에 전남광주지역 12개 군이 신청을 마쳤다. 현재 서류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오는 16일께 발표평가를 거쳐 19일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오전 통합상황점검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선정에 기대를 나타냈다.

공모에 참여한 지역은 담양·고흥·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 등 12개 군이다.

전남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추가 공모 계획을 안내하고 12개 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시·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역별 의견은 아직 모두 취합되지 않은 상태다.

전남광주시관계자는 추가공모 결과가나온뒤구체적인논의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

이번 추가 공모는 지난 10월8일부터 11월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 52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약 18개 군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의 농어촌 읍·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내년 1-12월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전국 약 72만명으로, 군당 평균 4만명 수준이다.

전국 추가 공모 사업비는 내년 기준 총 1조2천96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재원은 국비 50%(6천480억원), 광역자치단체 25%(3천240억원), 기초자치단체 25%(3천240억원)로 분담한다. 올해 국비 분담률 40%와 비교하면 10%포인트(p) 높아진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 어르신, 카드 한장으로 지하철 무료·교통비 환급

내달 7일부터 '통합 체크카드' 발급

전남광주지역 어르신들이 카드 한 장으로 광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나은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모두의카드·어르신교통카드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7일부터 두 카드 기능을 통합한 '전남광주어르신교통 모두의카드'를 발급한다.

만 65세 이상은 이 카드로 광주 도시철도를 무료 이용하고, 시내버스와 타 지역 도시철도 이용 때는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는 전남광주 지역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뒤 모두의카드 누리집이나 앱에서 등록하면 된다. 하나은행과 행정복지센터, 광주교통공사 등에서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팩스용지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복사용지 ▪각종잉크류
▪카트리지 ▪판매 ▪임 대 ▪A/S
T.062)375-5880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인접
부동산 매물들입니다
1) 매매{매가11억}중흥6거리 광장코너 땅상업지 대지93평
2) 매매{4억5,000}중수청인접 대69평4층건물 월세330만원
3) 매매{13억5,000}중수청인접 대지193평 단층건물 평당700
법률사무실, 커피, 카페, 음식점 최적
4) 매매{2억8,800}중흥6거리 인접 대지64평 평당450만원
5)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 1층90평(면적분할가)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최적
6)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코너 2층70평(면적분할가)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5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1. 발전사업의 명칭	선일 13호 구례 금정 태양광발전소
2. 발전사업의 위치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109 일원
3. 발전사업의 면적	약 13,158㎡ (약 3,980평)
4.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1) 발전용량 : 1,806.49kW 2) 설비개요 : 태양광발전소 3) 추진계획 : 27년 착공, 28년 상업운전 4) 사업운영기간 : 20년간 운영 예정
5.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선승5발전(최대주주 : 오진택)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1)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2)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 1105호(가산동) - 전화 : 010-2443-8997 - 팩스 : 02-832-0206 - 메일 : yulara@naver.com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5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1. 발전사업의 명칭	테선 23호 구례 금정 태양광발전소
2. 발전사업의 위치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4-3 일원
3. 발전사업의 면적	약 8,956㎡ (약 2,709평)
4.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1) 발전용량 : 1,006.08kW 2) 설비개요 : 태양광발전소 3) 추진계획 : 27년 착공, 28년 상업운전 4) 사업운영기간 : 20년간 운영 예정
5.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테라2발전 (최대주주 : 오진택)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1)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2)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 1202호(가산동) - 전화 : 010-2443-8997 - 팩스 : 02-832-0206 - 메일 : yulara@naver.com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5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1. 발전사업의 명칭	빛담 27호 구례 금정 태양광발전소
2. 발전사업의 위치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2-1 일원
3. 발전사업의 면적	약 7,313㎡ (약 2,212평)
4.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1) 발전용량 : 859.36kW 2) 설비개요 : 태양광발전소 3) 추진계획 : 27년 착공, 28년 상업운전 4) 사업운영기간 : 20년간 운영 예정
5.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빛드림태양광1발전 (최대주주 : 오진택)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1)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2)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 15층(가산동) - 전화 : 010-2443-8997 - 팩스 : 02-832-0206 - 메일 : yulara@naver.com